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대강절(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선포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며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기간 매 주일에 드리는 가정예배 안내서를 사용하십시오.
- 멧쟁이학교 2학기 종강발표회가 12월 4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박예영 청년이 군복무를 마치고 25일(목) 제대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이 1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나송주 집사 (생일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46 호
2021년 11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마감 직전

멋쟁이학교 6학년 때에 전교생이 다함께 롯데월드에서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멋쟁이들이 신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잠 못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늦은 밤까지 눈을 못 붙였지만, 다른 애들과는 사뭇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일렁임은 롯데월드에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 정체는 초조함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격렬하거나 높이가 높은 놀이기구를 무서워했고, 되도록 그런 종류를 피해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놀이동산에서는 저와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다니게 되었고, 그것에 불만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나니, 지금껏 똑같이 해왔던 학교의 모든 활동에 아쉬움이 끼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똑같은 경험을 다시는 할 수 없다면, 이번엔 좀 다르게 하는 것은 어떨까?' 몸을 이리저리 뒤흔드는 놀이기구의 불쾌한 경험인가, 인생에 다시 없는 멋쟁이들과의 색다른 경험인가, 하는 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말만 이야기하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라면 쳐다보기도 두려웠던 온갖 무서웠던 놀이기구들, 자이로드롭이라던가 스윙이라던가 온갖 것을 타보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후들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그 날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달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그 개념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마감이 있는 과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시험 전의 벼락치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에 시간적 한계를 두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시한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흔히 특히 질병 등으로 삶에 가까운 마감표가 주어진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의 마음

은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라는 죽음의 5가지 단계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한부임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많은 공통된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잠시 개켜두고 미뤄두었던 일들에 착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관계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 묵은 원한을 청산하고, 과거의 죄에 용서를 구하고, 오랜 빚을 갚으며, 쌓은 과업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있을 수 없다는, 마감에 가깝다는 인식을 하게 된 사람의 반응인 셈입니다. 그 때가 되면 사업에 몰두했던 사람도, 더 높은 성취를 갈망했던 사람도,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른바 인생의 '마감 효과'인 것입니다.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욕망을 더더욱 충족시키고자 하는 효과 또한 일어납니다. 그 방향성에 취하다보면 방종과 낭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사건사고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때가 바로 학기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 일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적힌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베드로전서 4:7-8)"

2021년이 지고 있는 요즈음, 한 해의 마무리까지 1달 남은 이 시간에 더 늦기 전에 말씀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축복과 평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랑방 지체들이 복된 마감 효과를 누리시길 기대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 말씀

“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
< 누가복음 1장 78~7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50편

제목 :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89 370 615 331

1-2 무엇을 찬양하는가?

(찬양의 대상)

해석: 하나님의 성소(예배당)과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야한다.

적용: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자.

3-5 어떻게 찬양하는가?

(찬양의 방법)

해석: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며 함께 정성을 모아 찬양해야한다.

적용: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하면 전체가 모였을 때 서로 보완되고 전체로 봤을 때는 크고 좋게 된다.

6 누가 찬양해야하는가?

(찬양자)

해석: 생명이 있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한다.

적용: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거이 살자. 걱정보다는 희망과 감사로 살자.

요르단에서 온 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 삶에 열매가 풍성치 않더라도 그저 주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저희도 이곳 한인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며 한인분들과 풍성한 교제 나누어서 기뻐합니다.

삶의 치열함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고백인 시편은 늘 우리의 고백 같습니다.

시편을 따라가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가족들의 영혼과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도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곳도 그제 비가 하루종일 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과 우기철로 접어들고요.

만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 이리 때마다 시마다 놀라운지요. 한결같으시면서도 변화와 도전이 있으십니다.

얼마 전, 동역자분이 담요를 후원해주셔서 난민 가정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뜻을 다시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따뜻하게 나누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은 매일 약 복용 하면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오장육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요섭이는 군 복무 잘하고 있고요, 아내도 맡은 사역 한국어 교사와 교회 섬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는 간호학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준비를 하고 있고 성령이도 중3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의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샬롬~~

요르단 임채정 선교사님의 편지글입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96 : 1-3	인도자
*예배의 찬송	29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용서의 말씀		다함께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10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누가복음 1 : 67 - 79	설교자
성가대 찬양	440	사랑방
설 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가랴”		정재훈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549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55(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나송주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동기도문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가랴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수태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나이가 많기에 사가랴는 의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 일로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 까지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말문이 열린 사가랴. 열 달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로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결정이 안되어서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어오는데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서판에 쓰는 순간 사가랴의 입과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약속의 첫 번째 성취.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첫 번째 성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매일 일상에서 신실함과 경건의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 목요일은 '성경 암송의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모임 시간 마다 외웠던 말씀을 다시 외워보는 날이지요. 매 달 두 가지 말씀을 외우니 다 모으면 약 스무 개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 암송의 날'에는 특별히 센싱더스토리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올 해 센싱더스토리는 예수님 이야기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오전에는 각자 자신 있게 외울 수 있는 말씀과 노래를 선생님 앞에서 외우고 불러보며 성공한 대로 종이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오후에는 풍선으로 장식한 매트 위에 한 사람씩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외웠습니다. 멋지고 예쁘게 무대 의상을 입고 온 꾸러기들이 당당하게 말씀을 외우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코이노니아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러 와주시고, 하교 후에 바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영상을 본 꾸러기 부모님들의 감동 후기가 단체 특 방에 올라와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꾸러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학년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그래도 밖에 있을만했던 날씨가 월요일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도보여행 후 한달이 지나서 가는 여행이었고, 중간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더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어린이 친구들이 즐겁게 다녀와줘서 고맙습니다.

첫날의 시작은 춘천 스카이워크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과 고소공포증과 싸우며 열심히 놀았습니다. 스카이 워크에서 사진을 찍고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사장님과 선생님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아이들의 식사량으로 모두가 놀란 식사였습니다. 달아실 미술관에서 어린이부터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고 밤에는 공동체 놀이를 즐겼습니다. 피곤한 아이도 별떡 일어나 열정적으로 놀았던 시간입니다. 둘째날은 2021년을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놀이터에서 땀내며 놀았습니다. 저녁에는 1, 2학년, 3학년, 4,5학년, 6학년 2팀으로 나눠 노래방에 가 열창했습니다. 그후에 영화를 본 뒤 씻고 꿈나라에 갔습니다. 마지막날은 숙소를 나와 춘천 막국수 체험장에서 직접 국수를 뽑아 먹었고, 그후에 근처 카페에 조를 나눠 들어가 우아한 디저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봇박물관과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는 시간을 보냈고 저녁 6시쯤 축석 휴게소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즐거운 추억과 다음날의 가정학습으로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교사 : 조익 >

멋쟁이학교

지난 한 주간동안 멋쟁이들은 열심히 종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멋쟁이 스스로가 학기를 정리해보는 학생자율평가서도 작성했습니다. 수업들도 한 학기의 내용을 갈무리하며 정리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배움을 채우기 위해 보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6학년은 졸업여행을 경주와 포항으로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종강발표회가 있습니다. 멋쟁이들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한껏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간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기말면담이 있습니다. 때론 부담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지만, 한학기를 되돌아보며 성장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멋쟁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그곳이, 감격과 희망이 피어오르는 만남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함께 사는 이야기

지난 9월부터 사랑방공동체에 독일에서 온 손님 두 분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멧쟁이학교에서 학생들과 어울리며 생활하면서 영어 회화 수업을 자원하여 돕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가지 못한 3,4학년들을 위해서,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터라 두 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멧쟁이 차로 운행하여 함께 오가게 되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총 6차례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곳과 한국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가까운 광릉과 수목원 그리고 봉선사를 시작으로 서울에 경복궁, 창경궁, 인사동, 승동교회, 영락교회 멀리는 용인 민속촌과 수원 화성과 행궁,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주 DMZ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은 답사지를 미리 조사하여 외국인 선생님에게 영어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역을 다녀오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곳은 승동교회인데, 예전에 곤당골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가 시무했던 곳으로, 이후 왕손 이재형 장로와 함께 당회를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신분제도의 차이를 극복한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볼 때 계속해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서상륜, 서경조 형제의 이름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황해도 소래에는 한국 최초의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용인 총신대에 있는 소래교회를 복원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기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조직 교회인 새문안교회에서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서상륜을 비롯한 황해도 소래교회의 교인 14인이 함께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퍼져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외국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여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찾아서 답사를 다니는 것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 간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영어로 준비하고 함께 동행했던 3,4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애썼다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욱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요한복음 20:24-29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1. 세계를 위한 기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폐막일(12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치열한 협상을 한 끝에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대표 결정문으로 채택했다. 합의내용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오기 전에, 전인류가 협력하여 자연을 잘 보존하도록.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두막 공동체>

- 1) 생태자립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2)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 3) 연해주와 북한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노효종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 2) 연말을 향한 준비와 마무리가 잘 되어가도록,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멧쟁이 6학년들은 졸업을 앞두고 졸업여행을 부산과 경주로 다녀왔습니다. 수능을 마친 후 휴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학교도 오랜만에 춘천으로 월요일부터 2박 3일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박태규, 전향옥 집사님 둘째 박예영 청년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했습니다. 아직 제대 날짜는 좀 남아있지만 코로나로 그간 쓰지 못한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형태로 일찍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나송주 집사님의 환갑 잔치가 있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터라 서로에게 매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간 함께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모두 백신을 맞았지만, 워드 코로나 이후로 늘어나는 확산세 때문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모쪼록 올해 마무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